

## 보도

# 경희의료원 문화복지센터 개관 후에도 '갑론을박'

## 문화복지센터 논란

박기윤 기자 kyooin7230@khu.ac.kr

'문화복지센터'(가칭)가 지난 11일 공식 개관됐다.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 총 4층 규모인 문화복지센터에는 총 15개의 프랜차이즈 업체가 입점했다. 아직 엘리베이터 공사 등 마무리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개관 당일부터 영업은 시작됐다.

지하 1층과 지상 2층은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들이 위치하고 있다. 지상 1층에는 카페 다섯 곳을 비롯해 김밥, 도식당 전문점, 편의점 등이 입점했고, 지상 3층에는 레스토랑이 들어섰다. 경희의료원은 문화복지센터의 임대 수익을 암센터 건립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문화복지센터에 대한 구성원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개관 이전부터 건물 디자인을 두고 많은 이견들이 오간 가운데, 총학생회는 공식 개관 당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유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총학생회 강필준(자율전공학 2012) 부회장은 "속칭 '노란건물'로 불리던 문화복지센터에는 15개의 프랜차이즈 매

장이 입점해 있다"라며 "암센터를 짓기 위해 계약을 맺은 것 외에 학생들에게 알려진 정보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최초 계획안에는 청운관 쪽 출입구에 대한 계획은 없었다"며 "이것은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상술"이라고 말했다.

## 총학, "문화복지센터가 구성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더불어 서울캠퍼스 내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생활협동조합(생협)과 비교해 문화복지센터가 구성원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생협의 경우 매장 내 제품가격도 비교적 저렴한데다가 수익금을 학생들에게 장학금 형식으로 환원하고 있는 반면, 일반 프랜차이즈 업체의 수익은 학교 측에 지불하는 임대료를 제외하고 구성원에게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경대학 학생회 권예하(언론정보학 2009) 회장은 "생활협동조합과 프랜차이즈 업체 사이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수익금이 누구에게로 돌아오느냐는 점이다"라며



경희의료원 문화복지센터를 두고 논란이 많다

"프랜차이즈업체는 그 수익금이 업체에 귀속되지만, 생활협동조합은 그 수익금이 구성원에게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협동조합의 선순환구조를 지키기 위해, 저 건물에서 나오는 수익금이 어떤 식으로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 학교는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생협 측은 문화복지센터가 개관되고 1주일 만에 매출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생협 관계자는 "학교는 프랜차이즈와 생협 간의 균형을 맞춰 구성원에게 돌아가는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희의료원 측은 문화복지센터와

생협의 역할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희의료원 관계자는 "업체와 계약할 때 학생들을 위한 할인혜택을 주기로 했다. 학생증을 제시하면 5~10%의 가격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며 "업체 역시 겸증된 프랜차이즈 업체만 선정했다"고 말했다.

## 경희의료원, "문화복지센터와 생협의 역할은 다르다"

한편, 지난 19일 총학은 한군데 서울부총장을 만나 문화복지센터와 앞으로 학내에 들어설 업체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총학 강필준 부회장은 "학내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며 "경영대학이나 문화복지센터 청운관 입구 같이 구성원의 동의가 없는 부분은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군데 부총장은 "문화복지센터는 병원 쪽 건물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다"며 "하지만 앞으로 입점할 업체에 대해서는 학생들과 충분히 의견을 교환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 ▶ 1면에서 이어짐

KMC는 위탁운영계약 만료 3개월 전인 2014년 6월, 글로벌다이닝에 위탁계약을 연장할 뜻이 없음을 서면으로 밝히고 직영 준비를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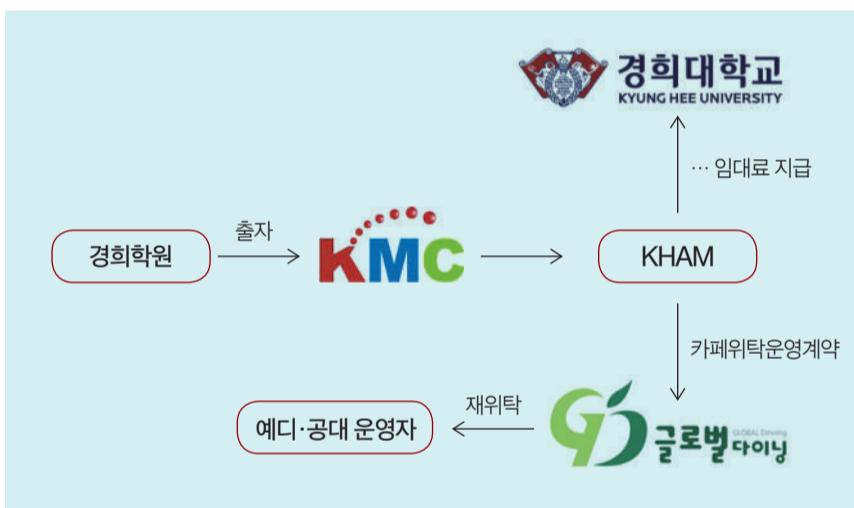
그리고 한 달 뒤인 7월 중순, 예디·공대카페의 운영자가 "우리들은 글로벌다이닝의 직원이 아니라 글로벌다이닝으로부터 영업권을 받은 개인사업자"라며 KMC에 '퇴거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카페운영자들의 이야기대로라면 KMC의 자회사인 KHAM으로부터 위탁운영권을 받은 글로벌다이닝이 다시 운영권을 개인사업자에게 넘긴 셈이다. 결국 2층, 3층으로 꾼인 운영권 뒷에 직영 전환은 빨리 목표였다. 상황을 파악한 KMC 측은 글로벌다이닝의 예수보증금과 직전 3개월 매출금에 대한 정산을 보류했다. 흥실장은 "처음 직영운영을 준비할 때는 이런 복잡한 사정이 있는 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신문은 글로벌다이닝 측에 취재를 요청했으나, 대표이사의 해외출장으로 진행하지 못했다.

지난해 8월 KMC는 본격적으로 카페운영자와 협상을 시작했다. 하지만 협상은 지지부진했고 계약종료일인 8월 31일까지 진전이 전혀 없었다. 문제를 풀고자 KMC는 영업허가를 담당하는 기흥구청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기흥구청에서는 '현재로서는 구청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통보했다. 이 사이 KHAM은 KMC에 영업양도를 했고, 영업권이 이전되면서 KHAM의 사업자등록은 말소됐다. 자연스레 카드가맹계약도 해지돼, 이 때부터 예디와 공대 카페의 카드결제가 불가능해졌다.

## 카드결제 불가 피해 구성원에게 세무서는 KMC에 관련 경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카페를 이용하는 구성원에게 돌아갔다.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발행부가 반복됐고, 일부 이용자들이 참다못해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을 접수받은 용인시 세무서는 카페 운영자가 아닌, KMC에 경고장을 발송했다. KMC에



서 나름의 상황을 소명했지만, 세무서로부터 '서류상 영업자가 KMC로 돼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KMC가 운영자에 대해 개인정보를 갖고 고발해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렇게 문제는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예디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서민경 씨도 이상황이 답답하다. 서 씨는 "KMC에서는 글로벌다이닝과 자신이 해결해야 하는 문

제라고만 한다"며 "들어 올 때 보증금 외에 권리금 4천만원을 지불했다. 이것이 그 날 날아가게 생겼는데, KMC는 '계약연장은 없다'는 말밖에 없어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을 풀기위해 KMC는 우선 카페 운영자들에게 샌드위치·커피 원두 납품권을 주거나, KMC의 직원으로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더불어 글로벌다이

닝과의 법률대응 공조도 제안했다. 흥실장은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라며 "이렇게나마 운영자들의 손실을 덜어주고자 했다"고 밝혔다.

## KMC, "적극 대응하겠다" 글로벌다이닝 상대 명도소송

또한 지난 13일 글로벌다이닝에 대한 명도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명도소송은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그 부동산의 명도를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이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강제집행으로 이어진다. KMC 측은 "영업을 하지 못하는 두 곳에 임대료도 학교 측에 납부하고 있다"며 "교내이기 때문에 강제로 집기를 정리하는 물리력을 사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극적인 대응을 해왔다.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만큼 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 취업진로 프로그램 안내

1. 캠퍼스 리크루팅(기업체 채용설명회 및 면담)			
행사명	모집부문	일시	장소
대통령경호실 경호경무원 채용면담	공체 18기 특정직 7급 (경호, 정보통신)	13:00~17:00	청운관 1층 상담실

2. 1:1 취업진로지도 및 맞춤 컨설팅(취업상담)

- ◆ 대상: 경희대학교 학부 재학생, 졸업생
- ◆ 상담 내용: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 지도, 면접스킬 지도, 기업 및 직무 분석법, 로스쿨 진학 등
- ◆ 상세 내용

상담유형	컨설팅 트	일 시	장 소	신청방법
개인 상담	분야별 컨설팅 4명	월 ~ 금 (각 컨설팅별 일정 상의함)	오비스홀 354호~355호 제2법과대학 107~108호 취업진로지원처	온라인 접수 제3법과대학 107~108호 취업진로지원처
집단 상담	이종구 교수 (취진처 연구실장) 금융권, 대기업 상담	월 18:30~19:30 (매월 1~2회)	네오관 103호	네오관 103호 '수업/성적/상당/제3법과대학 107~108호 취업진로지원처' 내용 확인 후 신청
On Line Off Line 상담	한상백 팀장 (취업지원팀)	상 시	On Line (hansb@khu.ac.kr) Off Line (취업진로지원처)	

◆ 주의사항

- 상담 당일 낮 취업 불가
- (상당 당일 전날까지만 가능, 취소시 전화연락)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 당일 2부씩 프린트해서 자참(필수)

자세한 사항은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http://job1.khu.ac.kr>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hujob>  
연락처 02-961-0167~8, job@khu.ac.kr  
위치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처

## "나의 선택! 취직인가? 취업인가?"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특강자 : 배양숙

장 소 :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일 시 : 2015. 6. 5 (금) 15시

현직

- 삼성생명 FC영예사업부장보
- 수요포럼 인문의 숲 대표

경력

- 서울인문포럼 집행위원장(2014~현재)
- 수요포럼 인문의 숲 대표(2014~현재)

저서

- '걷는 자 달고, 행하는 자 이룬다.(강같은평화)', 2011

방송

- EBS 성공시대
- MTN(머니투데이) 이의정의 라이프매거진
- CBS 이홍렬의 편편한 복카페
- 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 한국경제TV 성공스토리 '만남'
- 울산MBC 토크콘서트 'GO STOP쇼'
- EBS라디오 명사가 읽어주는 책 한권
- EBS 다큐멘터리 2015서울인문포럼
- '인문학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서울캠퍼스 취업진로지원처

## 2015학년도 후기 석사과정 신입생 모집

구 분	학 과	전 공
석사과정	글로벌기업법학과 공공법학과 중국법학과 지적재산법학과 조세법학과	글로벌기업법전공, 미국법전공 입법전공, 공법전공 중국법전공 지적재산법전공, 인터넷법전공 조세법전공
장학제도	장학금	지급기준
경희문화재학 수업료 13%	본교 등록 및 호텔경영대학 등록	
공무원장학 30%	공무원, 군인, 정부투자기관 재직자	
외국인장학 20%	정원 외로 입학한 외국인	
평생교육장학 50~100%	경희사이버대, 서울디자인대, 열린사이버대 출입(예정자) 행정조교 또는 연구조교에 지원하여 임용된 학생	

※ 국가고시장학, 성적장학, 모범장학, 총장장학 등 기타 장학제도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 ○ 강의 - 주중(야간) 및 주말 개설

○ 경희전형 일정

- 원서접수 : 2015. 5. 26(화) ~ 6. 12(금)
- 전형 일 : 6. 13(토) 10:30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방문접수, E-mail접수(khsb2670@khu.ac.kr)

○ 전형료 - ₩50,000(입금계좌: 하나은행 278-910030-40505/예금주: 법무대학원)

○ 출판료 - ₩10,000(입금계좌: 경희대학교 278-910030-40505/예금주: 경희대학교)

○ 출판료 - ₩10,000(입금계좌: 경희대학교 278-910030-40505/예금주: 경희대학교)